

“경계에 선 사람들 모습 그리고 싶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강애영 작가 ‘우리의 민아’ 펴내
“소설은 ‘숨’과 같은 것... 모티브는 주로 생활속에서 찾아”

“제 소설의 주제는 경계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으나 언제 바깥으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들이지요. 삶이 왜 이렇지도 공평하고 추한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강애영 소설가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에게 소설은, 거대한 담론이나 사변적 서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적으로 삶이 중심이 되어 하고, 오늘을 사는 이들의 생활이 드러나야 했다.

작가는 최근 펴낸 첫 장작집 ‘우리의 민아’ (문학들)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활과 대결하는 이들을 서사의 중심부로 불러냈다.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한밤중에 민서는’으로 등단한 작가는 주변의 인물들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그려낸다.

“몇 개월 전 두 발을 다쳐 고생을 했습니다. 발이 다 나으니까 싶었는데, 얼마 후에는 대상포진에 걸려 3개월 넘게 두문불출했구요. 명색이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제가 더 소설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는 이편의 물음에 그녀는 “몸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이것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라니 하고 흘려보냈다”며 허허롭게 웃었다.

강 작가는 문학 공부 기간이 길었다. “등단하고 별 반응이 없어서 작품이 별로인가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가는 자부심을 포기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6월 말경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드나들었지만, 그동안 틈틈이 써왔던 작품들을 다듬으

면서 “아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철저하게 생활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습니다. 때문에 겪은 일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닌지 작각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럴 때면 그저 웃을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도 달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작가의 말대로 모두 7편의 작품은 치열하게 생활과 대면하는 인물들이 주인공이다. 표제작 ‘우리의 민아’는 중국 교포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이 불안정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얼마 후 그는 사랑하는 딸 민아를 잃어버리고 치매까지 앓아 폐인이 된다.

다른 작품 ‘너는 모른다’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동생을 간호하려 애쓰는 누나의 이야기이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동생을 데려온 누나는 동생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얻어주고 생계를 위한 뒤치다꺼리까지 해준다. 그러나 동생은 누나의 번거로움에 감사하기는커녕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오늘의 시대 신자유주의 자본은 지나치게 부유하거나 지나치게 가난한 삶을 양산할 뿐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대작 ‘웃는 남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아름답고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하여 풍경 속 실존마저 그러하리라고 예단하는 건 무지의 소산일 뿐이죠.”

강 작가는 문정시절이 길었다. 늦은 등단이었던 만큼 좌충우돌하던 시간도 많았다. “맨날 깨지고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오랫동안 문우들과 함께 하다보니 미운 정이 들었다. 그로 인해 “누군가 글을 쓴다고 하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의 의미가 이렇게 방대하구나, 라고 느끼며 뭐라도 도움이 될까 오지랖을 피웁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동질감 때문이겠지요. 그런 이유로 문정이라고 하면 못마땅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구요.”

작가는 자신이 글을 쓰게 되기까지는 좋은 선생님을 덕분이라고 했다. 광주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면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았다. 문순태 작가를 비롯해 이기호 작가, 안점옥 동화 작가 등의 가르침이 살아 되고 피가 됐다.

작가는 오는 12월에는 연희 문예창작촌에 한달간 입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장편 초고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지만 내년 출간을 목표로 부지런히 써 볼 것이다.

“소설은 세계 속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쓰지 않을 수 없는, 한 장 한 장 쓰다보면 삶의 호흡이 느껴지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울림’ 무대에

양상블 ‘사랑과 나눔’ 정기연주회
오늘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양상블 사랑과 나눔이 제40회 정기연주회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울림’을 선보인다.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학업, 진로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교복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지친 삶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상과 함께 음악을 들려준다.

공연은 ‘클래식과 재즈와의 만남’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도플러의 ‘안단테와 론도’, 아일랜드 포크송 ‘오 데니 보이’, 볼컴의 ‘조지’, 피아졸라의 ‘방각’ 등을 들려준다.

또, ‘아디오스 노니노’, 최성욱의 창작 음악극 ‘이수일과 심순애’ 중 ‘내 사랑 순애’, ‘가여운 내사랑’을 비롯해 글리에르의 ‘6개의 피스’, 버넛의 ‘슬픔의 삼바’, ‘랙타임 왈츠’, ‘피날레’,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연주한다.

양상블 사랑과 나눔 조성경 대표가 총감독과 해설을 맡았고, 호남신학대 송선미 외래교수가 기획, 연출을 담당했다.

무대에는 피아노 조성경·황미경·천현주·송선미·박수미·김수현, 플룻 배혜경·표진윤, 성악 이승희·유기수·정별님, 첼로 김재연, 재즈피아노 김희영, 콘트라베이스 전사무엘, 드럼 홍준영 등이 오른다.

한편 양상블 사랑과 나눔은 ‘양상블’ 음악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이야기가 있는 연주회로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는 전문연주단체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 도서관, 30일 채사장 작가 초청 특 콘서트

코로나 여파 온라인 진행

광주전남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편’의 저자 채사장(사진) 작가 초청 특 콘서트가 열린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장우권)은 ‘2020 광주-전남이 읽고 푼 하다’ 사업의 일환으로 한 책 특 콘서트를 오는 30일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지금까지의 북 콘서트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편’은 지적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접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겨울 출간해 밀리언셀러에 오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2권)의 후속편이다.

채사장 작가는 인문학 분야에 드문 밀리언셀러 작가로, ‘시민의 교양’, ‘열한 계단’을 펴내는 등 활



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가희망자는 광주-전남 특 홈페이지 또는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 (<http://gjal.konnam.ac.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대는 한 책 도서교환전(9월), 도서전시회(9월)에 이어 한 책 문학기행(11월), 독서후기 공모전(11월), 한 책 독서퀴즈 이벤트(12월) 등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정여고 ‘짬뽕’ 광주학생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전국 청소년연극제 광주 대표 참가

문정여고의 ‘짬뽕’이 제 31회 광주학생연극제와 제 24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시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짬뽕’은 1980년 5월을 배경으로 중국집 춘래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배달원 만식은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군인을 만나고, 이후 TV에서 광주 지역 폭도들이 중국집 배달원까지 동원해 국군을 공격한다는 속보가 보도되면서 춘래원은 긴장에 휩싸인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이 지난 10-13일 호남대 락탈리극장에서 개최한 이번 연극제에는 전남 여고, 광주제일고, 문정여고, 동신여고 등 총 4개 고등학교가 참여했다. 올해 광주학생연극제 우수작품상(2위)은 동신여고의 ‘탐과 그림자’가 차지했



제 31회 광주학생연극제와 제 24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시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문정여고의 ‘짬뽕’ 공연 모습.

다. 한편 문정여고의 ‘짬뽕’은 오는 11월17일 밀양 아리랑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 24회 전국청

소년연극제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역량강화 시범사업’ 진행

다음달부터 ‘10년후 그라운드’서

광주시가 주최하고 ㈜주스컴퍼니가 주관하는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시범사업’이 오는 11월부터 10년후 그라운드(광주 남구 양촌길 1)에서 진행된다.

예술여행 기획자 양성과정은 예술관광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그램과 상품,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과 활동을 추진하는 기획자를 양성한다. 예술관광에 관심있는 기존 관광산업 종사자, 예비창업자,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예술여행 도슨트 양성과정은 지역예술자원,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예술관광 현장과 관광객을 매개할 수 있는 도슨

트를 양성한다. 관심 및 활동 범위를 아시아문화전당, 앙림동 역사문화마을, 비엔날레, 무등산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기존 현장 가이드, 도슨트,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각 과정당 20명 내외다.

오는 27일 오전 11시 30분 10년후 그라운드에서는 사전설명회가 열린다.

강신경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소개 및 교육방향’을 주제로 강의하며 지원신청서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과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070-4763-50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100세의로기 나누점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구, 장애인, 보조기, 환자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재용 건강체크기, 가정소발생기대어, 재활용품 각종 물리치료, 정질기 전동수터팬에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	법무사 김은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법조하우스3층 개인회생, 파산신청,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압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방실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등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행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타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서암대로95(신안교앞 고은상가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재료 ☎ 062)531-0331, 010-5511-033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장 굵김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응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평화이사소파 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앞)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톨폼파, 업소용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로79번길87(인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연건설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작·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장,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이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